

황교안·오세훈, 한국당대표 출마 가능



자유한국당 당권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'자유한국당 여성연대 워크숍'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.

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 출마 자격을 두고 당 선관위는 29일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.

당 선관위 “만장일치”...비대위서 의결 걸쳐야 승인 “경선거탁금 납부하고 입당문서 제출하면 출마 가능”

당 선관위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의 책임당원 자격요건 변경과 관련된 당헌·당규를 기준으로 과거 전례 등을 참고해 이같이 결정했다.

당 선관위는 입당 후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에게만 전대 출마 자격을 인정하는 당헌과 당원이면 누구나 가능한 것으로 보는 당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논의한 결과,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의 당권 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.

이러한 결정은 과거 전례도 고려했다. 한국당은 2017년 대선 당시 김진 후보가 책임당원이 아니었지만 출마 자격을 부여한 적 있다. 당 선관위가 두 후보에 대해 출

마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,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야 최종 승인된다.

박관용 한국당 선관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“규정, 전례에 따라 2019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·최고위원 선거의 후보등록신청지는 경선거탁금을 납부하고 입당문서 또는 당비출금이체신청서를 제출한 후 당헌·당규 규정에 따라 입당한 경우, 비대위에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의결해 출마를 요청한다”고 밝혔다.

박 위원장은 “오늘 진지하게 논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결정된 선관위 결의안이다”라며 “이런 결정으로 인해 더이상 이 문제 거론을 없을 것으로 본다”고 했다.



유승민, 손학규와 최근 회동 바른미래 정체성·진로 논의

유승민, 내달 연찬회 참석 예정

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최근 손학규 대표를 만나 당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. 유 전 대표는 내달 초 열리는 국회 의원 연찬회에도 참석하며 의원들과 소통에 나선다.

29일 바른미래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유 전 대표와 손 대표는 지난 24일 비공개로 만나 당 정체성과 미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.

이들의 만남은 손 대표가 지난해 12월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일 당시 이뤄진 이후 한 달여 만이다.

손 대표는 지난해 연말부터 유 전 대표와의 만남을 타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. 그는 지난해 11월 유 전 대표가 대학 강연에 나서자 “이제는 당에 나오셔서 당 개혁과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 싶어요”라며 “죽음의 계곡 속에서 모진 풍파를 맞고 있지만 아직도 함께 하는 동지들이 그 꿈과 의지를 버리지 않는다면 언젠가 꼭 희망의 새 봄이 올 거라고 확신한다”고 적었다.

다만 이들 만남에서 당 정체성과 진로 방향에 대한 의견 차는 여전했다. 유 전 대표는 대학 강연에서 “제가 생각하는 개혁보수와 바른미

래당의 방향이 좀 맞지 않다는 괴로움이 있다”고 말한 바 있다.

유 전 대표는 내달 8~9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연찬회도 참석한다. 그동안 의원총회 등 당 활동과 거리를 뒀던 그가 연찬회에 모습을 드러내면 7개월 만에 당대 행사에 나서게 된다.

그는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원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차원에서 참석을 결정했으며, 이 자리에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당 내부에선 유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 안에서 개혁보수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.

앞서 유 전 대표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바른미래당 창당 2주년 기념 글을 올리고 “바른미래당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지만 바른미래당의 창당정신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생각을 여전히 소중하다”며 “죽음의 계곡 속에서 모진 풍파를 맞고 있지만 아직도 함께 하는 동지들이 그 꿈과 의지를 버리지 않는다면 언젠가 꼭 희망의 새 봄이 올 거라고 확신한다”고 적었다.

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

박지원 “김현철 경제보좌관 망언, 靑 잔인한 결정해야”

“강한 조치 해야...나머지 3년 성공하는 길”

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9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 ‘해피조선’ 발언과 관련해 ‘망언이다’라며 “청와대가 잔인한 결정을 하는 것이 나머지 3년을 성공하는 길”이라고 밝혔다.

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‘심인보의 시선집중’에 나와 “김 위원장의 발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. 그런 발언 때문에 호재를 살

리지 못하고 악재를 스스로 불러 일으키는가 하면 정쟁의 계속으로 국민들이 피곤하다”고 지적했다.

박 의원은 “도대체 대통령은 지금 현안인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서 양대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대화를 하고,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통령께 그렇게 심하게 따지는데도 불구하고 복귀를 간곡히 요청했지만 양대노총이 다 거부하고 있는 이때에 명색이 경제

보좌관이 하는 일이 뭐냐”라며 “벨조선, 해피조선 박항서 감독처럼 아예안으로 가서 길 찾아봐라, 땀 글 떨어 마라, 등산 다니면서 뭐 하지 말라,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.

이어 “대통령께서 지금 집권 3년 차이다. 저는 누차 지적했지만 2년까지는 모든 분들이 잘 하려고 노력한다. 그렇지만 2년 되면 이러한 여러 가지 누수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강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”고 말했다.

그러면서 “지금 현재 비서실장



이나 정무수석 등 모두 교체해서 새로운 기풍으로 나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. 그런데 경제보좌관이 이런 망언을 한 것을 그대로 넘어가면 지도자는 온정주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”고 강조했다.

강한 조치가 교체를 의미하는 질문에 박 의원은 “잔인한 결정을 하는 것이 나머지 3년을 성공하는 길이다. 저는 그렇게 본다”고 답했다.

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

이재오 “김명수, 문재인의 사냥개냐”...MB 재판 관련 격분

“군사독재 때도 중요재판 중 판사 교체 안해” 주장

친이(친이명박)계 좌장인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은 29일 “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의 사냥개냐”고 비난했다.

이 상임고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“사람이 체면을 버릴 때가 있는데 나는 지금이 그때라고 본다”고 했다.

그는 “이명박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돼 증인신문

이 몇차례 되고 있다”며 “중요증인들이 법정에서 출석해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. 재판진행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”고 설명했다.

이 상임고문은 “그런데 김명수는 벌써 담당부장판사를 세번째 갈아치우고 있다”며 “첫번째 조모판사는 경북 출신이라고 같이치우더니 두번째 판사는 재판진행이 문재인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같이치

웠다. 세번째 판사는 말 잘 듣는 사냥개를 앉히려는 모양이다”라고 주장했다.

이어 “역대 중요 재판중에 판사를 갈아치우는 예는 군사독재에서도 없었다”며 “우리는 재판의 유희는 떠나 안정적으로 재판받길 원한다”고 강조했다.

이 상임고문은 “이명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두려워한 문재인은 김명수를 시켜 재판 중인 판사를 법원인사를 이유로 같이치웠다”며 “이것이아말로 문재인식 정의고 김명수식 사법정의냐”고 했다.

그는 “이것이아말로 국정농단이고 사법농단”이라며 “광화문에서 촛불을 다시 보게 될 것”이라고 경고했다.

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

정동영 “양대노총 경사노위 불참 유감”

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9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전달 사회적 대화 기구인 ‘경제사회노동위원회(경사노위)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“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”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.

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“사회적 대화를 통해 경제적 난국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가려는 것이 국민적 바람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.

그는 “촛불정부 출범 이후 단결권

협상권, 행동권 등 노동 3권이 제대로 존중되지 않는 것이 이번 결정에 이른 근본적인 원인”이라며 “정부는 단편적으로 노동을 동원하려는 발상에서 벗어나 타협과 협상의 대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”고 촉구했다.

그러면서 “촛불로 등장한 정부가 국민 통합의 길을 가려면 이따금 생색내기용 청와대 회동을 해선 안 된다”며 “상사적으로 문을 열고 각계 경제 사회적 주체들과 함께 열린 자세로 대화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지역광판·미래창조·정문특별
湖南新聞
전화 062)224-5800
팩스 062)222-5548

야호센터는 인문-예술-사회참여로 청소년-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.

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.

야호의 꿈
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
청소년이 사유하는 삶
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
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
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
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
마을 주민들이 스스로, 더불어 살아가는 삶

Drawing 이호동

062-960-6980
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

광산구